

시끌벅적 e-스타



우리말 VS 북한말

‘볼웃음’이 매력적인데다 다리매까지 뛰어나!’

무슨 소리인지 알쏭달쏭한 이 문장은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유어를 이용해 만든 문장이다. ‘볼웃음’이라는 단어를 보면 연못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그 미지대로 ‘볼웃음’은 미소를 뜻하는 북한 말이다. 하지만 ‘다리매’는 조금은 낯설다. 이 낯선 단어는 우리말로 각선미를 뜻하는 북한말이다.

우리 말과 북한의 단어를 비교한 동영상이 포털사이트 다음에 등장해 네이튠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간식거리로 인기 만점인 도너츠는 가락지빵으로 불린다. 여름에 반 가문 아이스크림은 얼을 보송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기름밥, 꼬부랑 국수, 단복, 짤개는 우

리말로 바꾸면 무엇이 될까? 정답은 볶음밥, 라면, 젤리, 반찬이다. 오색찬란한 무지개는 색동다리라고 불린다.

이외에도 부츠는 목달이 구두, 마네킹은 몸틀, 로터리는 도는 네거리가 된다. 외래어가 주가 되는 우리말과 비교하면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북한말에 대한 네이튠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네이튠은 “북쪽말은 우리말이 살아 있구나. 우리는 한자와 영어에 의존한 나머지 우리말로 우리말을 만드는 능력을 잊어버린다”고 했다. 이를 찾지 못해 해매는 내 모습처럼 오히려 외래어에 더 익숙해 버리다니..”, “우리보다 더 한글사랑이 보입니다. 다리매 빙동다리 진짜 이쁜단아네요”, “북한말 조금 억지스러운 것도 있지만, 대체로 이쁘게 잘 바꿨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늘의 유머

▶광고 효과

사업가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당신은 광고로 효과를 봤습니까?” 한 사업가가 먼저 물었다. 그러다 상대방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있다 뿐이겠어요? 지난주에 약간 경비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냈는데, 그 다음 날 밤에 바로 도착을 맞았답니다.”

▶자식 걱정

이웃집 여자들이서 자식 걱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먼저, 한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대학 다니는 아들 너석이 하구한날 돈을 부쳐 달라는 편지만 보내니, 도대체 그 돈으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어머니는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대학생인 제 딸은 한 번도 돈 보내 달라는 소리를 안 하니… 도대체 어디서 돈을 마련하는지…”

▶건강 관리

바닷가 근처에 살고 있는 칠순 노인이 담당 의사로부터 체중을 줄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바닷가 해수욕장 백사장에 하루종일 앉아 있기만 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바닷가에 앉아 비키니 차림의 여자들을 훔쳐보고 있던 할아버지는 친구와 마주쳤다.

“자네는 운동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

“그런데 그렇게 퍼질려 앉아서 여자 몸매나 처다 보면 운동이 되는가?”

그러자 할아버지가 정색을 하며 대답했다.

“모르는 소리 말게! 난 요즘의 구경을 하기 위해 매일 십리 길을 걸어오고 있네.”

▶딸과 아들

이웃집 여자들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딸이 시집을 잘 갔다면서요?”

“아주 좋은 신랑을 만났어요.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게 하고, 부엌일은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하고 매일 저녁 외식을 한데요.”

“그것 참 복الم았네요.”

“그런데 아드님은 장가를 잘못 갔다면서요?”

그러자 여자가 울상을 지으며 대답했다.

“속상해 죽겠어요. 며느리가 계율러 빠져 가지고 매일 늦잠을 자고, 부엌일은 아예 거들떠보려 하지 않고, 저녁에는 남편을 즐라 외식을 하려 들지 뭐예요!”

▶소꿉장난

다섯살배기 아들이 밖에서 놀다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가 아들에게 물었다.

“어디 갔았었나?”

“친구 집에서 놀았어요.”

“그래 뭐하고 놀았았나?”

“엄마, 아빠 놀이하고 놀았어요.”

“어떻게 하는 건데?”

“친구가 엄마하고 내가 아빠하고요, 내가 자고 있으면 친구가 와서 막 흘려 깨워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러지 마, 피곤해. 내일 해줄게’라고 말하면 돼요.”

▶군기

한 장군이 장군 친구를 방문했다. 그가 친구에게 물었다.

“자네 부하들 사기는 어떤가?”

“아주 좋답니다.”

“내 부하들은 훈련이 잘 돼서 용감하기로 치면 국내에서 최고일 걸세.”

그러자 친구가 말했다.

“내 부하들도 대단히 용감하다네!”

“어디 좀 보여주게나.”

그러자 친구가 일병을 한 명 불러 명령했다.

“자네 자기 오는 전차를 몸으로 막아놔!”

명령을 들은 일병은 “미쳤어요? 그럼 난 죽어버리는데 어찌하고 그렇게 얼빠진 소리를 합니까!”라고 소리쳤다.

이 소리를 들은 친구가 웃음을 띠며 말했다.

“봤지? 여간 용감하지 않고서는 장군에게 저 따위 말을 하지 못하는 거네!”

리빙 센스

몸매를 살리는 요가 ①

▲서서 앞으로 구부리기

허리와 다리 스트레칭으로 굽기가 가늘어진다.

①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린다.

② 숨을 들이마신 뒤 멈춘 상태에서 상체를 구부려 양손으로 양 발목을 잡는다.

③ 무릎과 다리 뒷부분이 펴진 상태에서 최대한 참았다가 숨을 내쉬면서 점점 더 내려간다.

▲늑골 조여주기

배가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늑골이 벌어져 있다. 이 자세를 많이 하면 늑골이 조여져 배가 들어간다.

① 갈비뼈 하단 부위에 있는 늑골 위에 양손을 올려 놓는다.

② 양쪽 늑골 부분을 잡아서 지그시 눌러준다.

③ 숨을 들이마신 뒤 내쉬면서 5초 정도 조여준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5일(음 5월 2일 丙子)



36년생 튼튼한 제방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다. 48년생 지출을 가장과 의논하라. 60년생 강풀이 순회하니 광안한 하루다. 72년 생 가정에 화목하게 지내야 운도 따르리다. 84년생 자신을 낮추면 오히려 본인 자신이 높아진다. 행운의 숫자: 22, 35



37년생 근처에 만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49년생 이웃을 살펴보면 뼈를 쓸을 일이 많으리라. 61년생 여성 친구 만나기 좋은 날이다. 73년생 협력자를 만나서 도움을 받는다. 행운의 숫자: 02, 26



38년생 어려움은 없으나 친인척의 번동으로 걱정이 생긴다. 50년생 땅과 물의 힘을 조심해야 한다. 62년생 육십을 내자 미라 좋은 날이다. 74년생 여러 가지 고통이 나타날 수 있으니 분수를 지켜라. 행운의 숫자: 10, 27



39년생 부부간의 이해있는 대화와 자녀를 살펴보라. 51년생 어려움은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되리라. 63년생 가정과 마음의 중간에 고통이 있을 수 있다. 75년생 주변의 기관과 협회된 문서를 조심하고 대처하는 대손은 없다. 행운의 숫자: 04, 25



40년생 건강이 수상하니 검진을 받아보라. 52년생 친구가 다시 외주하고 새 문서를 접고 가내는 경사로다. 64년생 민도끼로 세심하게 살펴보라. 76년생 협자 동업 신규부자는 深思熟考로 결정하라. 행운의 숫자: 08, 33



41년생 일이 순조롭고 내실이 있다. 53년생 같은 화려하나 속내는 허하거나 질식하게 처신하다. 65년생 겉으로만 뿐이 행동하면 쉬우리라. 77년생 사랑은 있으나 만남에 어려움이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 행운의 숫자: 05, 25



42년생 저울에는 당황하나 흥이 복으로 변하고 상황이다. 54년생 협회원은 일과 이루어지지 않으나 현실로 돌아오라. 66년생 옛 일이 괴로우니 다시 한번 살펴보라. 78년생 가정이 소란하니 조용히 해결하라. 행운의 숫자: 12, 26



43년생 다른으로 미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신중하고 또 신중하다. 55년생 연인과 접촉이 된다. 67년생 미움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사랑으로 보내라. 79년생 협회는 일은 면지처럼 날리고 화해하며 친내라. 행운의 숫자: 06, 37



44년생 보금자리를 매만져라 사람이 보인다. 56년생 오늘에 자동차를 조심하라. 68년생 겉으로는 쉬어하나 속으로는 좋아하는 사람 생긴다. 80년생 자신과 가정, 직장사이에 불편이 생활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19, 29



45년생 외의 財와 집안의 안정이 있다. 57년생 독신자는 새로운 연인을 만날 기회니 준비하고 기다리라. 69년생 새로운 일 생기고 협조자가 달려온다. 81년생 무부미가 들어니 선택을 잘하라. 행운의 숫자: 07, 40



46년생 진행하던 일이 순조롭게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 58년생 눈을 조금만 낮춰서 현실을 보라. 70년생 자녀와 떠여져 살아야 할 경우가 생기지만 좋은 일이다. 82년생 오늘 하루는 외근보다는 내근을 하라. 행운의 숫자: 15, 36



47년생 괴도한 투자만 없으면 결과는 솔솔 흘러리라. 59년생 오랫동안 기다리던 소식이 듬에 온다. 71년생 호수에 배를 띄우나 행운은 반반이다. 83년생 신사나 문서에 눈을 날까 두렵다. 행운의 숫자: 09, 38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체는 흥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뱃드

제품구입문의: (주)효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175>

you're probably right.
선생님의 말씀이 맞겠네요.

A : When is the repairman going to fix the walls?
B : I don't know. I guess he'll call me.
A : Maybe you should ask him about it.
B : Yah, you're probably right.

A : 수리공이 언제 그 담장을 고치려 올 건가요?
B : 모르겠는데. 아마 그분이 저한테 전화 할걸요.
A : 어쩌면 네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 더 나을 듯싶구나.
B : 예, 그 말씀이 맞겠네요.

* maybe : 어쩌면, 혹시
* fix : 수리하다
* 데이비드에게 한번 전화해보시죠.
= Maybe you should call David.

오하요우 니혼고 <1175>

天下(あまくだり)人事(じんじ)だって.
낙하산 인사래.

A : うまそうなもの食(た)べてるね. 何だい.
B : たこ焼(や)きだよ. カキフライ(ひと)つどうぞ.

A :ありがとう. ところで、社長が代(かわ)るらしいけど知(し)ってる.
B : うん、大蔵省(おおくらしきょう)の天下(あまくだり)人事(じんじ)だって.

A : 맛있어 보이는 것 먹고 있군. 뭐야?
B : 타코야끼예요. 괜찮으시면 하나 드세요.

A : 고마워. 그런데, 사장이 바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알고 있어?
B : 응. 대장성(재정경제원, 재무부)의 낙하산 인사래.

うまそだ: 맛있어 보인다
ところで: 그런데
よかったです: 좋았다면, 괜찮다면

니하오 쟁구워 <152>